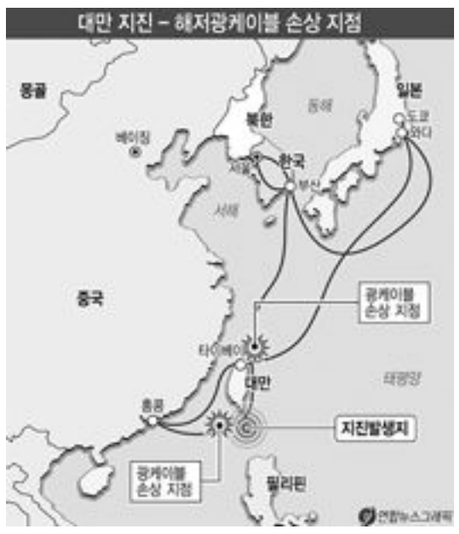
전세계 통신망 지진 한 번에 '와르르'

■대만 지진 '통신 대란'



지난 26일 대만 남부 해안을 강타한 지진으로 촉발된 '아시아 통신대란'은 세계 통신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데이터 전송시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통신 시스템이 이번 통신대란을 계기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홍콩과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지역 등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이 손상되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전화가 두절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통신망 정상 복구까지 한달 걸릴 듯

통신업체들에 따르면 지진으로 파손된 해저 케이블을 복구하는 데 앞으로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복구작업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문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던 단 한번의 자연재해로 야기된 이번 통신대란은 국제 통신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 가운데 하나이면서 최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통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신 수요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전 세계적으로 신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투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신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지지부진한 투자도 이번 통신 대란에 일조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해저 케이블 투자 부진이 '대란' 불러

'통신 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해도 기업들은 통신 수요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국내는 물론 국가들을 잇는 대규모 광케이블을 앞다퉈 개설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 만큼 통신 수요가 늘지 않자 광케이블에 투자했던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신규 투자 역시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몇년새 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과 국제전화 사용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기존 광케이블이 이를 감당하기 벅찰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은 이번 통신대란은 아시아 통신 시스템의 취약성과 함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통신대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태양계 밖 행성 탐사위성 '코로' 발사 성공

태양계 밖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제작된 최초의 외부행성 탐사위성 '코로'(COROT)가 27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로켓에 실려 극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코로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를 비롯, 유럽우주국(ESA), 브라질,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의 합작으로 제작됐다.

30㎝ 우주망원경과 2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코로는 앞으로 2년 반동안 생명체 존재의 최소조건 가운데 하나인 암석구조 행성들을 탐색하는 한편 별들의 진동을 관찰, 내부 구조와 나이 등을 밝혀내게 된다. 27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발사대에서 발사 준비 중인 코로. /로이터=연합뉴스

中美·亞太 해저케이블 등 6개망 단절

■지진으로 손상된 해저 케이블은

대만 지진의 영향으로 손상을 입은 해저 광케이블은 모두 6개 회선이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선 심해에 깔려있는 광케이블을 걷어올려 일일이 점검하고 수리, 교체한 뒤 다시 깔아야 한다. 워낙 힘든 작업인데다 여진의 우려도 아직 남아있어 완전 복구에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앙지를 지나는 7개의 회선 가운데 중미(中美) 해저케이블, 아태(亞太) 2호 해저케이블 S7, 아태 2호 해저케이블 S3, FLAG 광케이블, 동아(東亞) 인터넷 해저케이블, 유럽-아시아 해저통신케이블 3호 등 6개 케이블망이 단절됐다.

이 가운데 FLAG 광케이블은 한국과 홍콩을 잇는 케이블망으로 대만 지진 직후인 26일 오후 8시43분께 끊겼다.

중단지점은 대부분 진앙지 부근인 대만 남단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해역이다.

아시아권의 해저케이블은 싱가포르-홍콩-대만-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회선을 간선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만 지진은 네트워크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광케이블 한 회선은 2천560기가비트 용량으로 동시에 3천300만개의 전화 통신을 연결할 수 있어 위성을 통한 통신량의 2천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도시인 홍콩은 대외 통신의 99%를 광케이블 전송에 의뢰하고 있다. 중국과의 육상 광케이블망 외엔 모두 해저 광케이블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와 연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KT "중단 92개선중 12개선 복구"

국민은행·한국전산원등 정상 작동

대만 남부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과 대만 간 해저 광케이블 중 일부가 복구되고 일부는 우회소통되는 등 통신서비스가 상당부분 복구됐다.

28일 KT에 따르면 지난 26, 27일 대만 토칭 육양국 기점 713㎞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전용회선 92개선 중 12개선이 27일 밤늦게 복구됐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선을 사용중인 국민은행과 포스데이터, 삼성네트웍스, 한국전산원 등의 전산시스템은 복구 시점부터 정상 작동중이다.

복구된 선들은 EAC(East Asia Crossing) 케이블에 들어 있던 회선들로, 지진으로 케이블 중간의 전원장치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케이블 자체는 훼손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복구가 가능했다고 KT는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조사 결과 나머지 80개선의 경우 대부분 케이블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돼 완전복구에는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KT측은 주변국 통신사업자와 우회루트 구축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26개 전용회선의 서비스가 중단됐던 LG 데이콤은 우회루트를 구축해 이날 중 전용회선 서비스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과 HSBC은행이 28일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등 대만 지진으로 촉발된 외국계은행의 전산 장애가 상당 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의 해외지점들도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고액 연봉자 '하루 8시간 노동' 제외 추진

일정 연봉 이상의 샐러리맨을 '하루 8시간' 노동시간 규제로부터 제외하고 잔업임금도 없애는 제도가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전했다.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으로는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고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지 않으며 ▲연봉이 상당히 많은 '관리직' 직전의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도쿄=연합뉴스